

새 천년과 우리 言語文化의 발전 방향*

박 갑 수 (서울대)

< 차례 >

- I. 머리말
- II. 우리 언어문화의 변천사
- III. 우리 언어문화의 발전 방향
- IV. 마무리

I. 머리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의 하나가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생활의 대원칙은 협동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동은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간은 언어에 의해 협동을 하며, 언어에 의해 문화를 창조 전승해 왔다. 이러한 언어가 없었더라면 사람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원시생활의 반복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언어라면 흔히 음성언어를 이른다. 이러한 언어는 이 세상에 약 3,00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문자언어는 약 40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문자 가운데는 현재 쓰이고 있는 문자 외에 쓰이지 않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현재 쓰이고 있는 문자는 이

* 이 글은 99. 12. 7. 바른언어생활실천연합의 「새 천년과 통일을 위한 바른 언어생활 실천 포럼」의 주제발표 논문임.

보다 적은 수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언어는 있으나 문자가 없는 말이 대부분인 셈이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민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흔히 말하듯 언어와 민족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언어 외적 조건에 의해 민족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어와 민족은 밀착되어 있다. 언어에는 민족의 성정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그것을 말하는 민중의 생각과 느낌, 사회, 제도, 문물이 언어에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언어를 문화의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기에 민족마다 언어는 차이가 나고 특성을 지닌다.

언어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문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기 다른 민족문화의 요소가 그 속에 담겨진 문화다. 그러나 협의로 볼 때는 언어는 다른 문화 요소와 함께 문화를 이루는 작은 요소로 볼 수 있다. 언어를 문학 작품이나, 연희 작품과 같이 그것을 이루는 자료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언어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보고 새 천년의 언어문화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의 언어 문화는 반만년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말의 기원은 확인된 것은 아니나 대체로 알타이어에서 분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민족사와 함께 이합집산(離合集散)의 수난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문자언어는 근 4,000년을 독자적인 문자 없이, 남의 문자를 빌어 언문불일치(言文不一致)의 문어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1446년 한글이 창제되어 언문일치의 터전이 마련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어렵사리 우리 민족 나름의 언어문화를 영위하여 왔다.

여기서는 새 천년의 우리 언어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언어 문화의 발자취를 살피고, 새 천년에 발전시켜야 할 몇 가지 주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은 첫째로, 오늘날 제대로 영위되고 있지 않은 언어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언어 기능에 따른 효과적인 언어 사용」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둘째로는 규범에 맞지 않는 혼란스러운 언어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범에 맞는 언어생활의 실천」에 대해 살펴볼 것

이다. 셋째로는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언어의 통일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 한국어의 국제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영어 공용어화 문제도 아울러 논의될 것이다.

II. 우리 언어문화의 변천사

언어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나누어진다. 우리 음성언어는 역사적으로 고대 이래 한자문화 및 서구어 등의 도전을 받아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주체성을 지켜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문자언어는 일찍부터 한자 한문의 사용으로 언문불일치의 사태가 빚어졌으며, 1446년 국자가 제정된 후에도 여전히 한문위주의 문자생활이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국문위주의 문자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국어는 약 3000개의 언어 가운데 15-20위에 드는 큰 언어이다. 우리말을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볼 때 한국어는 알타이어에서 분화되어 북쪽의 부여 계통의 말과 남쪽의 한족의 말로 나뉘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고구려의 언어와, 신라백제의 언어를 이루었다. 이들 삼국의 언어는 같은 말이나 지정학적 이유로 지역 방언 이상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 고려는 신라의 말을, 조선은 고려의 말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문자언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찍이 한자를 수용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적어도 고구려에서 국초에 있던 「유기(留記)」 100권을 600년에 「신집(新集)」으로 개수했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두(吏讀), 구결(口訣), 향찰(鄉札)과 같은 한자의 차용표기 체계가 개발되었다. 그 뒤 1446년에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란 과학적인 표음문자를 창제 반포하여 오늘날 국자로 사용하게 되었다.

고대에는 언어생활에 고유어가 많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은 신라의 향가(鄉歌)를 볼 때 쉽게 확인된다. 여기에는 한자어가

별로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태학이 세워져 한문을 가르쳤고, 신라에서도 신문왕 2년(682) 국학(國學)을 세워 귀족의 자제들에게 유교의 경전을 가르쳤으므로 한자어가 부단히 우리말 속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자는 아직 따로 개발되지 않았고 한자를 썼다. 이에 입으로는 우리말을 하고 글은 한문을 써야 하는 언문불일치의 생활을 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언어생활은 문어(文語) 속의 한자어를 대량 구어(口語)에 유입되게 하였다. 특히 문화어가 그러했다. 신라 지증왕 때 국호와 왕호를 한자어로 바꾸고, 경덕왕 때(757) 지명을 한자 두 자로 된 중국식 지명으로 바꾼 것은 이때 한자 문화권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한문에 의한 문자생활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한자의 소리와 뜻을 활용하여 국어를 표기하는 향찰(鄉札) 등의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개발하여 문자생활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용표기 체계의 개발은 우리 문자사에 기록되어야 할 초기의 표기 시도이다.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는 불교와 유교를 통치에 활용하였다. 광종 9년(958)에는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시험의 기본과목이 유교 경전이였다. 이 제도가 실시되며 언문불일치의 기형적인 이중생활은 심화되었다. 성종 때(992)엔 개경(開京)에 국자감(國子監)을 세우고, 각 군현(郡縣)에도 학교를 세워 유교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로 유교를 가르치는 사학(私學)도 많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중앙과 지방, 국자감과 사학 등에서 유교를 내용으로 한 한문위주의 교육이 꺾히며 상류층의 언어에는 한자어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한자 어휘의 사용은 일반 서민의 모방 대상이 되었고, 이는 마침내 고유어의 위축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 고려시대에는 원(元)의 영향을 받아 몽고어가 많이 차용되기도 하였다. 말 이름, 매 이름, 병명과 관계되는 몽고어가 많이 차용되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오늘날까지 남아 쓰이고 있다. 문자언어는 한문의 자유로운 구사에 의해 독자적인 한자의 차용표기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쇠퇴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경우 한자의 차

용표기에서 가타카나(片假名)가 생성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조선시대에는 중국문화의 영향이 한층 심화하였다. 이 시대에 와서는 유교이념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되었다. 특히 성종은 유교 장려정책을 폈으며, 한문학과 중국 의례를 널리 시행하였고, 주자학을 유력한 통치수단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유학이 흥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문을 통하여 한자 어휘가 국어에 많이 유입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문화적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한자어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명사나 동사까지도 고유어를 물리치고 한자어로 바뀌게 되었다. 한자로 된 불교용어는 고대 이래 큰 영향을 미쳤으나, 조선조에 와서는 그 세력이 미약해졌다. 근대에 접어들어서는 서양문물의 수용으로 새로운 용어들이 중국을 통해 한자로 수입되었다. 「자명종」, 「천리경」 같은 것이 이러한 예이다. 그리고 서민문학의 발흥으로 새로운 문학어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많은 어휘가 한자어로 된 것이었으며, 일상어를 대담하게 도입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중국어도 많이 차용되었다.

문자언어는 일대 혁명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훈민정음, 곧 한글이 창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 한자문화권에서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란(契丹)의 거란문자, 원(元)의 파스파문자, 청(淸)의 만주문자의 제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글의 제정은 문화적 독립, 주체성 확립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글은 무엇보다 민중을 위해 창제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득권층은 한자로 문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만리(崔萬理)의 한글 창제 반대 상소문은 이러한 기득권층의 생각이 표출된 것이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고, 독창적인 것이며, 배우기 쉽고, 음성 표기의 폭이 넓다는 등의 장점을 지닌다. 이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리의 문화 유산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화유산을 너무 확대해 왔다. 한문을 진서(眞書), 한글을 언문(諺文), 상글(常-)이라 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이는 상류층이 한자로 문자생활을 하여 왔기 때문이다. 한글을 지킨 것은 승려요, 여인들이었다. 그러기에 한글을 「중글」, 「암글」이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에서 히라카나(平假名)를 「온나데(女手)」, 「온나모지

(女文字)」라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일찍이 우리가 한글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국가로 발전시켰더라면 문화발전의 양상은 오늘날과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아쉬운 일이다.

현대에 접어들어서는 18, 9세기의 근대적 사상과 문화적 토대 위에 굳건한 나라와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하였다. 그래서 우선 언문일치의 필요성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한글이 「國文」이란 이름을 얻은 것은 이때에 와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서유견문」 등에 보이는 국한문체(國漢文體)가 주류를 이루었다. 국문체(國文體)는 근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소설에서 사용되었다. 이때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종 32년(1895) 칙령 제86호로 공포된 공문식(公文式)이다. 공문식은 다음과 같이 국문으로 본을 삼게 되어 있었다.

第9條 法律命令은 國文으로 本을 삼^ㄴ 漢譯을 附하며 혹 國漢文을 混用함.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해방 후 1948년 제정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이다. 이 법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맞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과는 달리 우리의 언어 현실은 아직까지 국한문체의 문자생활이 이어져 오고 있다. 1980년대에는 4대 어문규범, 그 가운데 1988년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종전의 규범이 한 학회안이었는데 국가 규범으로 바뀌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언어 상황과는 달리 이 시대는 일제하에 조선어 말살 정책이 피해진 암울한 시대이기도 하였다. 1937년 조선 교육령에 따라 「조선어과(朝鮮語科)」가 폐지되며 우리말 교육은 꺾

해질 수 없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민족어를 잃은 민족이 될 뻔하였다. 그런가 하면 해방 후에는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다른 언어규범에 의해 생활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의 언어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언어의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다.

현대국어의 특징은 우선 어휘 면에서 서양 학문의 개념어들이 한자어로 번역되어 대량 수입되고 있는가 하면, 무수한 서구어가 외래어로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오늘날 전체 어휘의 과반수 이상이 한자어를 포함한 외래어로 되어 있다. 영어의 단어 3분의 2가 외래어인 것과 유사하다. 구문(構文)도 서구어의 영향으로 많이 바뀌어 문체의 변화를 보이는가 하면, 비문(非文)이 양산되고 있다. 발음에도 혼란이 많이 빚어지고 있다. 표준발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특히 음의 장단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현대어는 학교 교육에 의해 언어의 통일과 순화가 꾀해지고 있음에도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그리하여 국어를 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문자언어의 면을 보면 국한혼용의 문체에서부터 한글 전용의 문체로 기울어졌으나, 한글전용이나, 국한혼용이나의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로마자가 문면에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 시대의 특징적 현상이다. 이는 국어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상 우리 언어문화의 역사를 개괄하여 보았다.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성언어가 언문불일치 등의 갖은 도전 속에도 중국어로, 혹은 한문 구조로 대체되지 아니하고 그런대로 주체성을 지켜왔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어 어휘의 과반수가 외래어라는 것은 반성해 보아야할 사실이다. 문자언어는 고유 문자가 제정되기 전은 말할 것도 없고 국자가 제정된 뒤에도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다가 현대에 들어서 비로소 각성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어 생활은 순화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오염되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순화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III. 우리 언어문화의 발전 방향

1. 언어기능에 따른 효과적 언어사용

언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협동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언어로 말미암아 시기 반목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언어는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의 기능을 바로 알고 이를 올바르게 운용하여야 한다.

언어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언어의 기능은 한 가지로 보면 「의사소통」이요, 두 가지로 보면 통달적(通達的) 기능과, 정서적(情緒的) 기능이 된다. 세 가지로 보면 서술(敘述), 표출(표출), 호소(呼訴)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야콥슨(Jacobson)의 경우처럼 여섯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 정서적 기능 또는 표현적 기능, 욕구적 기능, 상황적 기능, 관어적(關語的) 기능, 시적 기능, 지시적 기능 또는 외연적 기능 또는 인지적 기능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오그덴(Ogden C. K.)과 리차즈(Richads I. A.) 등의 소설에 따라 통달적(지시적) 기능과 정서적(감화적) 기능의 둘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통달적(通達的) 기능이란 지시하거나 지적하는 것으로 순수하게 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서적(情緒的) 기능이란 감정이나 태도를 환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통달적 표현의 대표적인 것이 과학 논문이요, 정서적 표현의 대표적인 것이 문학 그 가운데도 시이다. 일상언어는 정서적 표현에 기울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두 기능의 표현을 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는 전통적인 신언(愼言) 사상 때문에 그리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날은 이래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고 상호간에 끈끈한 유대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통달적 표현은 우선 외재적 사고(外在的 思考)에 의한 표현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두 가지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사물

세계와 언어의 세계이다. 사물세계는 현실세계, 사실세계, 외재적 세계라 한다. 이에 대해 언어의 세계는 사고세계, 내재적 세계라 한다. 외재적 사고의 표현을 하라는 말은 추상의 단계를 한껏 낮추어 사실세계에 부합한 표현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말을 바꾸면 사실 제일주의, 검증 제일주의의 사고에 의한 표현을 하여야 한다. 이는 언어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세계에 주목하라는 말이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 옷 로비사건도 이 사실세계에 부합하지 않은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사실세계에 부합한 진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고의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고란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실증이 가능하며, 추론이나 단정을 배제하여야 한다.

둘째, 다 어떻다는 총칭 판단(總稱判斷) 아닌 비총칭 판단, 곧 특칭 판단, 단칭(單稱) 판단을 함으로 차이점을 무시한 일반화를 피해야 한다.

셋째, 일치적(一值的) 사고, 이치적(二置的) 사고와 같은 과치적(寡值的)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 이는 외재적 세계를 단순화하여 총칭적 판단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지시」와 「환답」만 하는 대통령에 대한 기사는 이러한 예이다. 다치적(多值的) 사고를 함으로 폭넓은 외재적 사고를 하고, 과학적 사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동일시 판단도 배제해야 한다. 이것도 외재적 세계에 대한 관찰을 가로막고, 부당한 단정적 사고를 하게 하기 때문이다.

통달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단정을 피하고 연체 반응(延滯反應)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통달적 표현과 거리가 먼 언어생활을 하고 있다. 검증하기 전에 말하는가 하면, 차이점을 무시하고 일반화하여 총칭적 판단을 한다. 그리고 외재적 세계를 단순화하여 과치적 사고를 하고, 동일시한다. 이러한 표현은 지양되어야 한다. 진정한 통달적 표현을 하여 동의하고 인정함으로 충돌과 불신 아닌, 협동과 조화를 보이는 언어사회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다. 따라서 언어생활이나 표현에 있어 감정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이에 통달적 표현과 함께 감화적 표현을 하여야 한다. 본질적으로 정서적·사회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본다면 통달적 기능이란 이차적인 것이요, 목표 달성의 수단이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언어활동은 하나의 반작용(反作用), 즉 감화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행동을 기대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움직이기 위하여는 언어의 정서적인 기능이 작용하여 전인격적으로 감동을 주어야 한다. 이른바 정적 논리(情的論理)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서적인 표현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긍정적인 면에서 몇 가지 방법을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일반화한다. 일반화란 높은 추상에 의해 동일시함으로써 부분적인 것이거나 특수한 것이 전체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을 환기하여 상대방을 감화하게 하는 것이다. 「충청도 양반(충청도인)」, 「예향(호남)」이 이러한 예이다.

둘째, 편향(偏向)된 표현을 한다. 이는 특수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쳐다봄으로써 부분 강조를 하는 것이다. 통달적 표현으로 볼 때는 「말하지 않는 거짓말」이 되나, 선의의 편향은 인생에 윤희유 역할을 한다. 외교사령의 대부분이 이러한 말이다.

셋째, 바람직한 명명을 한다. 사물과 명칭의 관계는 자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들 사이에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명명을 할 때 상대방은 감화를 받는다. 국회에서 명칭 때문에 승강이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넷째, 모호하게 표현한다. 예민한 문제는 그야말로 「허 밑에 죽을 말이 있다」. 이런 때는 단정하기보다 얼버무리는 것이 좋다. 「안 된다」는 거절보다 「연구해 봅시다」가 한결 당사자의 마음을 달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단정적 표현을 한다. 단정이란 사실에 대한 서술이라기보다 가치 판단에 대한 서술이다. 화자의 호·불호를 표현하는 것이다. 긍정적 가치판단이 사랑을 받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여섯째, 이치적 사고의 표현을 한다. 이치적 사고는 하나의 관심에 기초를 둔 태도 결정으로, 하나의 정황 속으로 휘모는 감화력을 드러낸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그 효과를 크게 나타낸다.

일곱째, 완곡법을 활용한다. 완곡법이란 어떤 사물을 노골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돌려서 점잖게 표현하는 법을 이른다. 이는 금기나, 말하기를 꺼리는 사회적으로 언짢은 것을 돌려서 재명명(再命名)하는 것이다. 이는 공포, 불안, 불쾌감 등을 삭히거나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드러낸다.

여덟째, 전기호적 언어를 사용한다. 고양이가 기분이 좋아서 내는 소리같이 외재적 서술이 아닌 전기호적 성격을 띠는 말을 한다. 인사말이나, 의례사(儀禮辭), 외교사령과 같은 말이 이러한 것이다. 이들은 본래는 지시적 의미를 지닌 말이었겠으나, 그 의미가 약화 소실되어 의미 전달 아닌 정의를 확인하거나 다지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남의 발을 밟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고, 줄을 선 사람들 틈을 비집고 지나가면서도 「실례합니다」란 말을 하지 않는다. 예의상으로 보아도 당연히 해야 하고, 또 인사말을 건네면 서로 이해하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지 않을 텐데 말이다. 우리는 즐겨 가르랑거리는 말(purr-words)을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여야 하겠다.

일반의미론 학자 하야카와(Hayakawa S. I.)는 「모든 언어는 그 사용법에 따라 감화적 성질을 지니며, 통달적 가치보다 감화적 가치를 위해 사용되는 말이 많다」고 하였다. 정서적 표현은 마술적 힘을 갖는다. 이는 좋게도 나쁘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가 사물을 대신하는 기호이고 보면 이는 선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언어의 정서적인 표현을 애용하여야 하겠다. 특히 우리와 같이 정서적인 표현에 인색한 민족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십니까」로 대표되는 인사는 「고미실안」운동을 통해 정착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새 천년은 지금보다 훨씬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2. 규범에 맞는 언어생활의 실천

언어는 자의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계약에 의한 기호이다. 따라서 이는 약속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규범에 맞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규범에 맞는 말이란 광의의 표준어라 할 수 있다. 표준어는 그 사회의 공용어가 된다. 따라서 표준어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언어사회의 문화를 가늠하기도 한다. 우리의 표준어 규정에서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 현실을 보면 규범에 맞는 언어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상생활 속의 개인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매스컴에 종사하는 전문인들마저도 언어 규범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언어생활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규범에 어긋난 언어생활의 실태를 살펴 새 천년의 언어 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우리들에게는 4대 어문규정이 있다. 그것은 「한글맞춤법(1988)」, 「표준어규정(1988)」, 「외래어표기법(1985)」, 「로마자 표기법(1985)」이 그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순서는 언어의 구조에 따라 말소리, 낱말, 문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표기법을 보기로 한다.

1) 말소리

말소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음운의 변이, 말소리의 장단, 어조 따위이다.

음운의 변이(變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모음의 경우 「ㅐ-ㅔ」가 혼란을 빚는 것이다. 이 밖에 「ㅓ>ㅕ」화도 구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밖에 「계집애>기집애」와 같은 「ㅔ>ㅣ」화도 많이 보이지만 이것은 방언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자음의 경우는 연한 소리를 된소리로 내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밖에 연한 소리를 거센소리

로 내거나, 무성음을 유성음으로 내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말소리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많다.

첫째, 종성의 연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종래의 7종성 이외의 받침이 제대로 연음이 안 된다(들녘에서>들녀게서, 닭이>다기, 젓을>저술).

둘째 종성의 겹받침이 제대로 발음되지 않는다. 「뺨다(뺨따), 뺨게(뺨께)」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셋째 잘못된 동화현상이 일어난다. 모음동화(가자미>가재미>, 손잡이>손재비)와 전설모음화(까슬까슬>까실까실, 으스대다>으시대다), 연구개음화(젓가슴>적가슴, 둔갑>등갑, 한국>항국), 양순음화(꽃바구니>꼭빠구니, 넷물>넙물, 신문>심문)가 그것이다.

넷째, 공연한 음운의 첨가현상이 많다(다르다>달르다, 활용>활룽, 육이오>육니오, 메다>메이다).

이 밖에 말소리의 장단이 크게 혼란을 빚고 있어 문제이다. 「奸臣-諫臣, 監賞-感想, 軍民-郡民, 難民-亂民, 頂上-正常」이 구별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외래어의 발음은 원음주의를 택해 규범에 맞는 발음을 듣기 힘들 정도이다. 「까스(가스), 뺨데리(배터리), 악세사리(액세서리), 초코렛(초콜릿), 테레비(텔레비전), 후레시(프레시)」이 그 예이다.

2) 낱말

낱말의 문제는 표준어 아닌 방언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방언은 유형화해 볼 때 전통적인 고형을 사용하는 경우와 변화된 새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유사한 이형태 가운데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의 세 가지가 있다.

① 전통적 형태

가개(가게), 뒤안(뒤꼀), 모두다(모으다), 모밀(메밀), 부비다(비비다), 쉬흔(쉼), 영글다(여물다), 음달(응달), 이쁘다(예쁘다), 자내(자네), 줏다(줍다), 하옴없다(하염없다)

② 변화된 형태

계자(겨자), 담다(담그다), 디립다(들입다), 바램(바람), 수집다(수줍다), 시지부지(흐지부지), 얼기빚(얼레빚), 엄청(엄청나게), 으시대다(으스대다), 이면수(임연수어), 칼치(갈치), 황새기젓(황석어젓)

③ 특정한 이형태(異形態)

검지(집게손가락), 까끄럽다(깔끄럽다), 까치(개비), 메꾸다(메우다), 새악시(새색시), 인쇄(인), 안절부절하다(안절부절못하다), 어스름달(으스름달), 한참때(한창때)

이 밖에 의미의 면에서 그 뜻을 잘못 알고 쓰는 경우와 동의 반복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① 의미 혼란

가르치다(敎)-가리키다(指), 까불다-까부르다, 넘어다보다-넘보다, 돌아다-돌구다, 두껍다-두텁다, 부수다-부시다, 시간-시각, 신다-태우다, 잃어버리다-잊어버리다, 작다-적다, 토-음, 틀리다-다르다, 한글-국어, 한창-한참, 홀몸-홀몸

② 동의어 반복

결실을 맺다, 낙엽이 지다, 넓은 광장, 남은 여생, 따뜻한 온정, 만족감을 느끼다, 범행을 저지르다, 새 신랑, 시월달, 잔존해 있는, 아직 미정, 저무는 세모, 접수 받다, 피해를 입다, 현안 문제

3) 문장

문장 구성상 호응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조사, 활용, 시제, 대우법 등 문법면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많다. 의미상 호응이 되지 않는 것도 보인다.

① 문장 구성상의 문제

성분의 호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 예상된다”는 보술 구성과, “-ㄴ 전망이다”란 수식 구성이다. 이는 매스컴에서도 애용되는 것으로 비문법적 표현이다.

- 건강한 주말을 보내시고(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주술구성>
- 우리나라가 인도에게(-를) 16대0으로 이겼습니다. <객술구성>
-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술구성>
- 상위 그룹을 휩쓸 (것으로) 전망입니다(전망됩니다). <수식구성>
- 흐리면서(흐리고)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접속구성>

② 의미 호응상의 문제

의미상 부적절한 용어가 쓰이는 경우와 조리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위로했습니다).
- 나무에 매달려 숨진 채(숨져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 이래서야(이렇게 되면) 선거는 정치 행태에 대한 불안과 의혹을 해소시키기는 커녕 자칫 민주정치에 대한 근원적 불신과 회의가 널리 퍼질까(회의를 널리 증폭시키지 않을까) 두렵다.

③ 문법적인 문제

-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라고(-고) 생각하셨어요?
- LG가 현대에게(현대를) 3 대 2로 이겼습니다.
- 건강하십시오(건강하시기를).
- 여기 가만히 있거라(있어라).
- 좋은 사람 소개시켜(소개해) 주마.
- 경제적인 수명도 연장되어집니다(됩니다)
- 김포공항에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도착하지 않았습니까).
- 과장님이 계장님을 오시랍니다(오라십니다).
-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있겠습니다).

4) 표기법

표기가 잘못 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한글맞춤법이 바뀐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구식 표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구식 표기는 매스컴에서도 적잖이 나타난다. 이들 예를 몇 개 보면 다음과 같다.

「뜨개옷(뜨개옷), 놓치지 마십시오(마십시오), 먹을께(먹을게), 세살박이(세살배기), 장례식 치뤄(치러), 햅쌀 선풍(선풂)」

이상 언어규범에 어긋난 언어 사용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언어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현되는 언어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형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에는 지역방언을 사용할 때 이를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표준어를 배워 쓰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근자에는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무관심해진 듯하다. 지역 방언을 고치려는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은 문화국민으로서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영국의 런던에는 표준발음을 익히는 학원이 성업을 이루며, 일반 서민은 상류계층의 언어를 배우기에 열을 올린다고 한다. 우리도 전국민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문화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구나 방언은 그 방언권을 환기한다. 따라서 이는 화자의 출신 지역을 환기시켜 소위 망국적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지역방언의 사용이 억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 천년에는 전국민이 표준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 대화합을 이루어 내야 하겠다.

3. 남북한 언어의 통일 추진

한반도가 분단된 지 어언 반세기가 지났다. 그리하여 남북한의 언어가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흔히 논의되듯 이질화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직 남북의 동포가 의사소통에 커다란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그러나 음운, 어휘, 통사 등에 차이가 나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가 심화하면 다른 말이라 생각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마저 희박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질성 아닌,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남북의 언어 차이는 자연적인 변화에 의한 차이라기보다 인위적인 기준에 의한 차이가 크다. 우선 표준으로 삼는 「표준어」와 「문화어」의 기준이 다르다. 남한의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고, 북한의 문화어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 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지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음에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살펴 통일의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발음의 차이

남북의 표준발음은 각각 서울말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의 실제 발음과,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기준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 발음은 이러한 원칙과는 달리 공통점이 많다.

발음상 가장 큰 차이는 남한에서는 두음법칙을 인정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낙원(樂園)-락원, 양심(良心)-량심, 여자(女子)-녀자」와 같이 차이가 난다. 자음동화(子音同化)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변이(變異)를 인정하지 않는다. 남한에서는 받침 「ㄱ, ㅇ」 뒤의 「ㄷ」(심리, 향로)이나, 받침 「ㄱ, ㅂ」 뒤의 「ㄷ」(독립, 협력)을 [ㄴ]으로 발음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든 모음 앞의 「ㄷ」을 본래의 소리대로 발음한다. 이 밖에 합성어 뒷말의 발음에 차이를 보인다. 남한에서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붙이고, 된소리만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고 적은 대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ㄷ]을 끼워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남한의 「갯바닥[개빠닥], 노랫소리[노래소리]」가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바닥], [노래소리]로 발음된다. 이러한 것이 발음상의 큰 차이이다.

2) 어휘의 차이

남북한 언어에서 가장 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어휘이다. 어휘는 형태 면에서 볼 때 주로 이념과 제도, 어휘 사정, 말다듬기, 표기 및 발음의 차이로 말미암아 다른 모습을 보인다.

남북한은 정치 사회적인 이념(理念)이나, 제도(制度)가 달라 그것을 나타내는 신어를 만들어 씬으로 어휘상의 차이를 드러낸다. 곧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이나 그 제도를 반영한 낱말이,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이념이나 그 제도를 반영한 낱말이 신조되어 쓰임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북한의 「민족통일전선, 천리마운동, 의무노력일, 량권」과 같은 말이나, 남한의 「총선, 새마을운동, 부가가치세, 수능시험」과 같은 말이 그 예이다. 이러한 이념이나 제도로 말미암아 차이가 나는 말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서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어휘 사정에 의한 차이는 표준으로 삼는 단어를 남북한이 달리 사정함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어 내지 문화어의 사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이다. 남한에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거나, 쓰지 않는 낱말이 북한에서 문화어로 작성된 것을 몇 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위주먹(가위바위보), 날래(빨리), 동가슴(양가슴), 락자없다(영락없다), 망돌(맷돌), 발편잠(마음 놓고 편안히 쉬는 잠), 손오가리(목소리가 멀리 들리도록 손을 오그려 입에 대는 것), 피타다(피끓다)

말다듬기에 의해 차이가 나는 말도 상당히 많다. 북한에서는 1964년 이래 말다듬기를 하여 1987년 「다듬은 말」 25,000여 개를 선정 발표하였다. 남한에서도 1976년 이래 국어 순화 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북에서는 이러한 어휘 정리 사업을 민족의 순결성과 민족 특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 의식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듬은 말을 국가에서 지도하며 원말은 쓰지 않게 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 공통어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남북의 차이를 빚게 하고 있는

북한의 다듬은 말을 몇 개 보면 다음과 같다.

결바다(연해), 내굴쏘임(훈연), 밥길(식도), 돈자리(구좌), 불탈성(가연성), 산견딜성(내산성), 젓먹임칸(수유실), 찬물미역(냉수육), 푸른차(녹차), 허이끼(설태)

이 밖에 북한에서는 「가락지빵(도너스), 나넨옷(투피스), 내민대(발코니), 젓가슴띠(브래지어), 창문보(커튼)」와 같이 외래어도 다듬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남북한의 다듬은 말은 차이가 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같거나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다.

표기 및 발음이 달라 차이를 보이는 것도 많다. 발음상의 차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표기상의 차이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사이시옷이 원칙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어휘는 형태의 면만이 아니라, 의미의 면에서 그 뜻이 변해 차이를 드러내는 경우 있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것에는 정치성이 강한 말들이 많다. 의미의 차이는 기본적인 의미가 달라진 것도 있고, 부차적인 의미가 달라진 것도 있다. 「공작, 교양, 궁전, 동무, 바쁘다, 방조, 선동, 아버지, 평화주의, 휴양소」 같은 말은 남북에서 다 같이 쓰는 말이나 그 의미가 다른 것이다. 이러한 말은 형태가 같으면서 그 뜻이 달라 오해가 빚어질 위험성이 크다.

외래어의 형태도 차이를 보인다. 남한이 원음주의를 채택하는데 대해, 북한에서는 러시아어 위주의 표기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차이를 보이는 몇 개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젼/게임, 뉴안쓰/뉴앙스, 로씨야/러시아, 사크/색, 안쌘블/앙상블, 테노르/테너, 후라스코/플라스크」

3) 구문의 차이

남북한의 문장 구조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문체상의 차이이고, 간단한 문법적인 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북한에서는 서술어 「되다」의 보어에 주로 「-으로」가 호응된다는 것이다. 「공동 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입이 무겁다면 그건 남자의 첫째 가는 장점으로 되지요.」가 그것이다. 남한에서는 이때 보어를 「염원이», 「장점이」와 같이 조사 「-이」를 써서 나타낸다. 「-데 대하여」의 수식 성분의 호응도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주로 「-ㄴ」 관형사형으로 나타낸다.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 나갈 데 대하여」가 그 예이다. 남한에서는 「살려 나가는 데 대하여」와 같이 「-ㄴ」 관형사형을 취한다. 「데」를 쓰지 않을 경우는 「-ㄴ 것」에 대하여」를 쓸 수 있다. 이밖에 북한에서는 일부 형용사의 연결형에 「나다」가 이어지는 독특한 표현을 보여 준다. 「가슴이 짜릿해 났다.», 「끈끈해 나더니 곧 딱딱해진다」가 그 예이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충심으로 되는 감사», 「습관되어 있지 않다.», 「관심하는 사람들」과 같은 표현이 쓰여 남한의 어법이나 문체와 다른 면을 보여 준다. 「고향 생각을 하했어요.», 「나올 생각이 없는 거구만요.», 「의무가 아니나요?」도 남한의 문법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나를 쉬우려고, 젓을 먹여 자래운 자식」과 같이 사동 접사의 활용에도 남한과 다른 점을 보여 준다. 이렇게 남북한은 문체와 문법면에 차이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들 표현은 형태만이 다를 뿐이며 의사소통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

4) 맞춤법의 차이

맞춤법도 차이를 보인다. 해방 후 남북의 맞춤법은 다 같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표기법이 같았었는데 1954년 북한에서 「조선어 철자법」을 제정 공포함으로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북의 맞춤법은 다 같이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하였고, 형태주의(形態主義)를 지향하고 있어 다른 영역

에 비하여 문제가 덜한 편이다. 표기법의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① 사이시옷을 남한에서는 쓰고, 북에서는 쓰지 않는다.
 - ② 어간 모음 「ㅣ, ㅐ, ㅓ, ㅕ, ㅗ, ㅛ」 아래 남한에서는 「-어/-었」을 쓰는데, 북한에서는 「-여/-였」을 쓴다.
 - ③ 한자의 어두음 「ㄹ」과 구개음화된 「ㄴ」에 대해 남한에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는데, 북에서는 원음 표기를 한다.
 - ④ 띄어쓰기는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좀더 띄어쓰는 편이다.
- 이러한 표기법의 차이는 남북한이 다 같이 준용했던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쉽게 통일될 수 있을 것이다.

5) 외래어와 로마자 표기법의 차이

외래어 표기법은 일찍이 1940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외래어표기법 통일안」이 있었다. 이는 한글맞춤법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표기는 만국음성기호를 표준으로 하였다. 해방된 뒤에 남한에서는 1948년 문교부의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1958년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으로 개정되었다. 그 뒤 1986년에 이를 다시 개정하여 오늘날의 「외래어 표기법」으로 정착되었다. 이의 「표기의 기본원칙」은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종성만을 쓴다」,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1956년에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러시아어에 의한 표기를 우선한 것이었다. 1958년에는 이 표기법이 남한과 다름을 의식해서인지 수정한 「외래어 표기법」을 내어놓았다. 이는 표음주의적 표기에서 음소주의적 표기로 바뀐 것이다. 1984년에는 「고친 외래어 표기」를 내어놓아 다시 원음을 중시하는 표기법으로 바뀌었다. 북한의 표기가 러시아어 위주의 표기에서 원음주의로 바뀌어 따

라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는 전에 비해 가까워지게 되었다.

로마자 표기법은 일찍이 구미인들에 의해 그 방안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가운데 1930년대의 머쿤-라이샤워 안(McCune-Reischauer System)은 가장 주목받은 것이다. 1941년에는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음 羅馬字 표기법」이 만들어졌다. 1948년 남한에서는 「한글 로마자로 적는 법」이란 최초의 정부안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머쿤-라이샤워 안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 뒤 1959년 문교부는 다시 「한글 로마자 표기법」을 내놓았다. 이는 파열음 체계를 「g, k, gg」로 적는 것이었다. 그 뒤 정부는 1984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는 표음주의를 지향한 것으로 머쿤-라이샤워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 표기법은 파열음을 「k·g, k', kk」의 체계를 따른 것이다.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은 「외국 자모에 의한 조선어 표기법」으로 되어 있는데, 1956년에 간행된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가운데 들어 있다. 이는 표음주의적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남한의 현행 표기법과 비슷한 것이다. 이들은 자모음을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이 같고 몇 개만이 다를 뿐이다. 이러하기에 로마자 표기는 남북에 별 문제가 없다. 1991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통일안도 합의를 본 바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 다시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1959년의 「한글 로마자 표기법」의 체계로 돌아가려 하고 있어 문제다. 이는 표기의 편의 면에서는 바람직하나,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역행하는 처사가 된다.

6) 남북한 언어의 통일 방안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차이는 분단 기간을 고려할 때 그리 심각한 편은 아니다. 이질성 아닌 동질성과 유사성을 강조하며 통일을 추구할 때, 남북한의 통일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인위적인 차이이니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남북한은 다른 민족 아닌 같은 민족으로 분단에 의해 언어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표지(標識)요, 결속의 핵이 되는 언어를

통일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동족임을 확인하고 공존공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곧 통일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동질성·유사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분단의 폐해를 강조하는 나머지 그간 이질화가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심리적으로 이질감 아닌 동질감을 가질 때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준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우선 표기법이 쉽게 통일될 것이고, 발음의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말다듬기나, 순화 대상어는 즉각 버릴 것이 아니라, 동질성 유지의 차원에서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하도록 할 일이다. 그리고 새로 표준어와 문화어를 사정하거나, 말다듬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질성을 전제로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증폭시키게 된다.

둘째, 교류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언어는 사회적 맥락이 제공될 때 쉽게 이해된다. 이런 의미에서 민간의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듯 서로 접촉할 때 이질감이나 거부감이 사라지고 친숙해진다. 이질화가 심한 것은 이념이나 제도를 반영하는 어휘이다. 이러한 말은 사실세계(事實世界)를 파악함으로써 이해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교류가 필요하다. 사람의 교류가 어렵다면 우선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을 개방하여야 한다. 동서독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문학작품의 교류도 권장되어야 한다.

셋째, 관련 학자의 접촉과 통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남북한 언어의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관련 학자의 접촉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 언어의 통일을 위한 원칙, 범위,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대부분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연구의 기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는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쉽게 통일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다. 결정 뒤엔 이를 따라야 하는 많은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어문 규범의 통일은 각각 적절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맞춤법과 표준발음,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은 남북이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일할 수 있다. 이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맞춤법이 그러하다. 통일의 원칙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표준어는 연합 통일방안을 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은 일단 양쪽을 다 수용하는 것이다. 이는 외형상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복수 표준어로 정착하든지, 아니면 적자생존의 원칙에 의해 어느 하나가 도태되든지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어휘를 망라한 통일 국어사전의 제작도 필요한 작업이다.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한국어의 국제화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폐쇄정책을 펴며, 다른 나라와 담을 쌓고 살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지구촌이란 말이 일반화되었듯 대부분의 나라들이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하며 살고 있다. 이른바 국제화시대가 된 것이다.

한 언어의 국제화, 말을 바꾸면 한 언어의 외국어로서의 교육은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며 문화교류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나라마다 외국어로서의 자국어 교육에 열을 올린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외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시작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일찍이 신라 景德王 때(761)에 꾀해졌다. 일본의 「속일본기(續日本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乙未 令美濃・武藏二國少年 每國二十人習新羅語 爲征新羅也

(續日本紀, 天平寶字五年正月乙未條)

그리고 그 뒤 일본에서는 1720년 유학자 雨森芳洲가 「통사(通詞)」의

부족을 통감하여 「韓語司」의 설립을 대마 번주(對馬藩主)에게 건의하였고, 1727년에 「한어사(韓語司)」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아마도 최초의 한국어 교육 기관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교린수지(交隣需知)」와 「인어대방(隣語大方)」 등은 이때 저술된 조선어 학습서이다. 중국에서는 송(宋) 나라 손목(孫穆)이 「계림유사(鷄林類事)」를 짓고, 명(明)나라 때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가 간행되어 각각 고려어와 조선어 학습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본격적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최근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약소민족이어 감히 외국인에게 우리말을 가르쳐 보급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한국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15-20위에 드는 큰 언어이며, 우리 나라는 170여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국력이 신장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세계 도처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국제화는 꿈만이 아니다.

최근의 한국어의 이러한 급증 현상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간단히 확인된다. 중국의 경우 1922년까지만 하여도 조선어과가 설치된 대학이 5개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약 4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의 경우도 한일 국교정상화가 되던 1960년대만 하여도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대학이 5개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65개교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 호주의 대학 입시제도인 HSC(High School Certificate)와 미국의 SAT(Scholastic Assessment Test) II에 한국어가 채택됨으로 초·중등학교에까지 한국어가 정식 선택과목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약 50개국에, 약 300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한국어가 가르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꺾히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며, 문화교류를 촉진하게 된다. 한국어를 배우고, 그 언어 문화를 익히게 되면 자연 우리 문화를 확산하게 되고, 언어 문

화의 주체인 한국과 한국인에게 친근감을 갖고 우호적이게 된다. 그리하여 친구가 되고, 친한 인사(親韓人士)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자원 인사가 된다. 해외에 이러한 우호적인 자원 인사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인 면에서 교역으로 얼마간의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에 비할 것이 아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을 얻는 것이다. 근자에 외교 비즈니스 등 실용을 위해 영어 공용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데, 한국어의 국제화는 영어 공용어화보다 훨씬 실리적인 것이다. 그것은 세계 도처에 한국어를 보급함으로 영어권의 화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화자를 자원 인사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은 장려되어야 하고, 한국어의 세계적인 보급·전파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어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크게 관심을 갖는 것 같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의 환경이 빈약하고 열악하다.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이러한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이에 열악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함께 이의 개선 방안을 살펴 우리 언어 문화의 발전을 모색하도록 한다.

첫째, 국내외를 불문하고 교육기관이 영세한 편이다.

한국어교육을 받겠다는 학생도 아직은 많지 아니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충분치 못한 형편이다. 그래서 근자에는 폐쇄되는 곳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해외의 자원 인사를 기르는 교육기관이니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는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기업에서 지원하거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자격 있는 교사가 없다.

한국어 교사는 국어 교사와 구별된다. 그런데도 아직 공식적으로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없다. 자격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양성하여 자격을 줄 수 있는 법적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양성 기관과 함께 자격시험을 치르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습 자료의 개발이 부실하다.

교재를 비롯하여 다양한 학습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

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교재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을 고려하여 개발함이 바람직하겠다. 학교 교육 아닌 개인적 학습을 위하여 CD 등의 학습자료의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외국에서는 부실한 교재마저 없어 애태우는 형편이다. 교재의 개발과 함께 교재의 공급도 연구되어야 할 숙제이다. 언어권에 따라 다른 교재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것도 단계별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의 개발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니 국가 기관에서의 개발이 요청된다.

넷째, 한국어 교육의 연구가 미미하다.

한국어교육의 역사가 짧아 학문적 연구 결과도 많지 못한 형편이다. 교수 학습을 위시하여 교육과정, 평가 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것이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다양한 교수법에 의해 교육 효과가 드러나도록 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국가적인 교육과정이 없다.

국가적인 차원의 교육과정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것이 마련되어야 원만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 기관마다 차이가 나고 통일성을 찾을 수 없게 된다. 한국어 교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수·학습의 내용이 선정되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배열된 교육과정의 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여섯째, 유인책(誘引策)이 별로 없다.

목적이 있어야 학습이 이루어지고, 의욕이 따르게 된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목적은 국가 또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나, 적어도 한국어 학습자 일반을 위한 어떤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어 학습자가 몰려들게 된다. 예를 들면 취업이나 진학에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학습 의욕을 갖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일이다.

한국어 교육에 덧붙여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는 영어 공용어화의 문제이다. 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곧 한국어의 국제화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최근에 제기되기 시작한 영어의 공용어화론은 외교와 비즈니스 등 실용과 실리를 내세운

주장이나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영어교육을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것과 공용어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게 되면 한국어 화자와 영어 화자의 괴리가 생겨 또 하나의 민족 분단을 낳게 될 것이며, 이는 나아가 국어 말살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인의 상류지향 심리와 획일주의가 이를 부채질 할 것이다. 언어는 단순한 전달의 도구가 아니요 하나의 문화이다. 한국어는 韓民族의 표지로, 여기에는 한민족의 문화가 깃들여 있다. 따라서 한국어를 영어로 대치하는 것은 민족과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실리 면에서 볼 때도 영어 공용어화는 한국어의 국제화를 따를 수 없다. 이밖에 영어 공용어화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첫째, 민족문화 발전을 저해한다.

둘째, 새로운 사대사상을 증폭시킨다.

셋째, 주체성을 잃게 한다.

넷째, 국력의 낭비하게 한다.

다섯째, 사고의 틀에 변화를 초래한다.

여섯째, 또다른 공용어화를 배제할 수 없게 한다.

IV. 마무리

옛날부터 우리는 「장심위정 출구위어(藏心爲情 出口爲語)」라 하였다. 말이란 우리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말에는 인격이 반영된다. 로마의 웅변가 키케로도 「완전한 웅변가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인격을 갈고 닦을 것을 강조하였다. 뷔퐁은 「문체는 그 사람이다」라 하였다. 말과 사람은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말을 하여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언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

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독일의 훔볼트(Humboldt W.)는 「말은 민족의 존재 기관 그 자체이다. 이것은 실로 민족의 존재 그 자체이다.」라고 민족이 지니는 언어적 천성이란 사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천성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언어에는 민족의 역사가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언어는 단순한 전달의 도구가 아닌 문화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민족어에 의해 독자적인 민족문화를 꽃피워 국제화 세계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새 천년은 특별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다짐하는 의미로 하나의 선을 그어 놓은 것이다. 우리도 지난날을 돌아보고 새로운 천년을 설계해야 하겠다. 특히 언어 문화면에서는 사실에 부합한 말을 하고, 친화를 다지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 하겠다. 규범에 맞는 언어를 사용함으로 교양인의 예우도 받아야 하겠고, 지역방언을 사용치 않으므로 소위 망국적인 지역 감정의 유발도 막아 국민 대화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동질성을 바탕으로 남북 언어의 통일을 꾀함으로 민족의 동질성도 회복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약소민족이라 자책하며 기죽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전파함으로 지구촌의 일원으로 세계문화 창조에 당당히 기여하며 살도록 하여야 하겠다. 대망의 새 천년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참고 문헌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일조각.
 박갑수(1984), 『국어의 표현과 순화론』, 지학사.
 _____(1994), 『우리말 사랑 이야기』, 한샘출판사.
 _____(1994), 『올바른 언어생활』, 한샘출판사.
 _____(1999),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집문당.
 _____(1994), “남북 맞춤법의 차이와 그 통일문제”, 『어문연구』 81-82, 어문연구회.

- _____(1996), “한국어 국제화의 현황과 과제”, 『해외 한민족과 차세대』, SAT II 한국어진흥재단.
- _____(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1, 서울사대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 _____(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문화적 배경”, 『선청어문』 26, 서울사대 국어교육과.
- _____(1998),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의 현황과 대책”, 『국어교육연구』 5,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_____(1999), “남북한의 언어차이와 그 통일 정책”, 『선청어문』 27, 서울사대 국어교육과.
- _____(2000), “한국어 교육과정 구안에 대한 논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3, 서울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초록>

새 천년과 우리 언어문화의 발전 방향

박 갑 수

새천년을 맞아 우리 언어문화의 역사를 살피고, 새 천년에 발전시켜야 할 몇 가지 언어 문화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언어 문화 가운데 음성언어는 言文不一致 등의 역경 속에서도 주체성을 지켜 왔다. 그러나 어휘의 과반수가 외래어란 사실은 반성을 요한다. 문자언어는 한글이 제정되기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뒤에도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다가 현대에 들어서 겨우 각성하게 되었다. 언어생활은 순화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오염되고 혼란이 빚어져 순화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언어문화 발전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① 언어의 기능에 따른 효과적인 언어 사용을 추구한다.
- ② 규범에 맞는 언어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다.
- ④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강화하여 한국어의 국제화를 꾀한다.

<Abstract>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Culture in the New Millennium

Park, Kap Soo

With the arrival of the new millennium,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culture and problems that should be heeded in this era will be reviewed in this paper.

In Korean language culture, spoken language has had its independence even though it has suffered from the discrepancy between written and spoken languages. However, the fact that half of Korean vocabulary is composed of imported words make us reflect on it. On the contrary, written language doesn't have its independence before and even after the creation of Korean alphabet, Hangul. Recently its problems begin to be recognised and modified. Though Korean language life has oriented to achieve its unification and purification, it still needs purifying because of adulteration and confusion.

Suggested goals to develop Korean language are as follows.

First, effective use of Korean according to its function as language should be sought for.

Second, practices for Korean language life based on norms should be performed.

Third, the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languages must be overcome and their reunification should be attained.

Forth, Korean language should be globalized through strengthening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